

서울지역 거주자의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주생활행위시 자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ating Style in Seoul

-Focusing on the Behavioral Posture-

장 상 옥*

Sang Ock Jang

신 경 주**

Kyung Joo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rends in changing seating style, focusing on the behavioral postur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78 households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Seating style related to dwellers in Seoul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patterns.

Seating style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I. 서 론

경제성장이후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생활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좌식생활에 입식이 도입되어 주공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변화된 생활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행위시의 기거양식의 현상과 앞으로의 변화 파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거양식의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예측하여, 이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의 목적으로 대도시 거주가정을 대상으로 각 주생활행위시의 자세측면에 초점

을 맞추어서 기거양식을 조사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설문지 조사는 1994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78부이었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 및 주택특성과 현재와 장래 희망하는 생활행위¹⁾시의 자세

1) 생활행위는 기거동작인 입식, 좌식이 명확히 파악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공동생활행위(식사, 단란, 접객), 개인생활행위(취침, 독서, 공부), 생리위생행위(세면, 배변, 목욕, 화장), 가사노동행위(세탁, 다림질, 재봉, 청소, 조리)로 분류하였다.

* 한양대학교 강사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기거동작)2)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단위는 연령별 성향을 파악하고자(가사노동행위와 손님 접대행위는 주부임), 전체 가족의 개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χ^2 검증 등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택특성

세대주는 30.40대가 많았으며, 80% 이상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이었고, 직업은 사무, 행정,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류층으로 볼 수 있었으며, 아파트 거주가정의 비율이 73%로 높았다. 거주규모와 방수는 21~30명, 31~40명대의 3~4실의 가정이 주로 표집되었다.

2. 주생활행위시의 자세

1) 공동생활 행위

(1) 식사행위

연령에 상관없이 입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좌식, 혼용식의 순이었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입식이 가장 많았는데, 50대 이상의 입식 희망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현재 입식과 좌식 집단 모두 입식 희망율이 가장 높았으나, 현재 혼용식 집단은 장래에도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001).

(2) 단란행위

입식이 가장 많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입식율이 다소 낮아져서 40대와 50대의 입식율은 약 50%이었다(P<.001). 장래는 혼용식을 가장 희망하였는데, 10대와 20대는 입식, 30대는 혼용식과 좌식을, 40대와 50대 이상은 혼용식의 비율이 높았다(P<.01). 현재 입식집단은 입

2)기거동작은 입식가구등을 신체지지구로 하면 입식, 좌식가구나 바닥면을 신체지지구로 하면 좌식, 입식과 좌식을 혼용하면 혼용식으로 하였다.

식과 혼용식을 희망하고, 현재 혼용식집단의 80% 이상은 혼용식을 희망하였으며, 현재 좌식 집단은 3가지 양식을 비슷한 비율로 원하였다(P<.0001).

(3) 손님접대행위

전체적으로 혼용식과 입식의 비율이 많았는데 업무관계손님의 접대시는 입식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외 친지 및 친구의 접대시는 혼용식의 비율이 높았다. 장래 희망양식 역시 현재와 같은 혼용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입식, 좌식의 순이었다. 그러나 업무관계의 손님접대는 입식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 입식집단의 입식희망율은 매우 높고,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좌식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희망하였다. 이외의 접대시는 현재 입식과 좌식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희망하였고,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01).

공동생활행위의 입식화순서는 식사→단란→손님접대로 손님접대의 입식율이 가장 낮았다.

■ 입식 □ 혼용식 ▨ 좌식 (%)

행위	현재	장래	현재	장래	현재	장래
식사	74.9	10.9	14.2	82.6	12.0	5.4
단란	62.3	23.4	14.3	41.7	43.1	15.2
접대	40.2	43.0	16.8	41.8	54.7	3.6

(그림1)공동생활행위시의 주생활자세

2) 개인생활 행위

(1) 취침행위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연령에 따라 취침양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P<.001). 특히 10대와 20대는 입식율이 제일 높았고, 30.40대는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좌식이 우세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입식(66.6%)이 가장 많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 희망율은 더욱 높았다(P<.001). 현재 입식집단은 장래도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좌식집단은 좌식과 입식

의 희망율이 거의 비슷하였다(P<.001).

(2) 독서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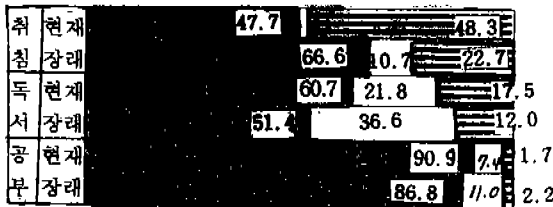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의 경향이 강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좌식이 약 반수를 차지하였다(P<.001).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 혼용식, 좌식의 순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좌식을 희망하였다(P<.01). 현재 입식집단의 60%이상은 입식을 희망하였고, 좌식집단은 혼용식과 입식의 희망비율이 비슷하였다(P<.0001).

(3) 공부행위

현재, 장래 모두 입식이 가장 우세하였다. 현재 입식집단의 90%이상이 입식을 희망하였고,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01).

개인생활행위의 입식화 순서는 자녀의 공부 →독서→취침순으로 취침의 입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었다.

■ 입식 □ 혼용식 ▨ 좌식 (%)



(그림2)개인생활행위시의 주생활자세

3) 생리위생 행위

(1) 세면행위

전 연령대별로 입식이 가장 많았으며, 장래 희망양식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입식이었다. 입식희망율은 입식집단이 95%이상, 좌식집단은 58.3%였으며,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의 희망율이 높아(P<.001), 입식과 좌식집단은 입식을 원하였으나,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였다.

(2) 목욕행위

전체적으로 입식(욕조안에서 선 자세의 샤워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좌식(욕조 밖의 바닥에 앉아서 목욕), 혼용식(입식과 좌식의 혼용)의 순이었다. 목욕행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율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반수가 좌식으로 입식율(16.7%)이 가장 낮았다. 앞으로 희망하는 양식은 3가지 양식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희망

하고, 좌식집단은 좌식희망율이 63.4%, 혼용식집단은 혼용식 희망율이 93.8%로(P<.001), 혼용식집단의 혼용식 유지희망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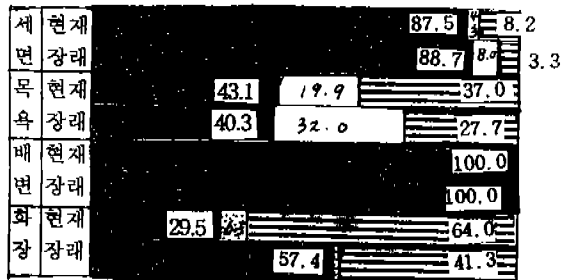
(3) 배변행위

현재와 장래 모두 100% 입식으로 나타나 배변행위의 입식이 정착되었다.

(4) 화장행위

전체적으로 입식이 낮은편이나, 20대는 입식율이 가장 높았고, 30대는 입식과 좌식이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좌식이 많아 연령이 높을수록 좌식의 비율이 높아지는 행위중의 하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입식이 57.4%, 좌식이 41.3%로 입식을 선호하였는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을 희망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좌식집단은 좌식희망율이 높아(P<.001), 각각 현재의 양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생리위생행위의 입식화 순서는 배변→세면→목욕→화장의 순으로 화장행위의 입식율이 가장 낮았다. ■입식□혼용식▨좌식○화장대없음 (%)



(그림3)생리위생행위시의 주생활자세

4) 가사노동행위

(1) 세탁행위

혼용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3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용식이 현저하였다. 장래희망양식은 혼용식, 입식, 좌식의 순으로 현재보다는 입식선호 경향이 증가하였다. 현재 입식집단은 앞으로도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1).

(2) 다림질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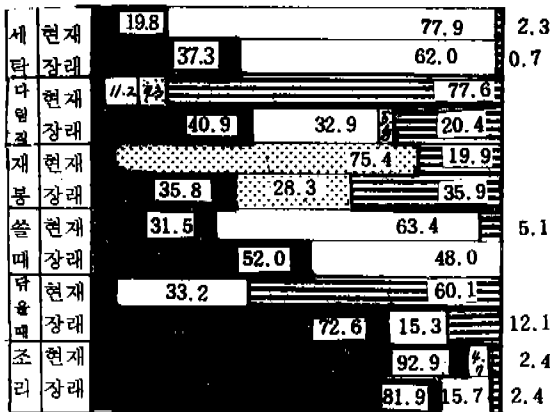
연령별 차이없이 좌식이 압도적이었으나,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가장 많았다. 현재 입식

집단은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으며, 좌식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의 희망비율이 비슷하였다(P<.001).

(3) 재봉행위

재봉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아, 재봉행위는 이미 사회화된 것으로 보였다. 자세면에서는 좌식이 다소 높았는데(재봉하지 않는 비율의 제외), 연령이 높을수록 그 경향이 뚜렷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좌식집단은 좌식을 희망하므로(P<.001), 전체 비율에서는 좌식이 우세하여, 이 양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입식 □혼용식 ▨좌식 ▩하지않음 (%)



(그림4)가사노동행위시의 주생활자세

(4) 청소행위

쓸때는 혼용식이 가장 많았으나, 50대 이상은 좌식이 높아 연령간의 차이를 보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과반수 이상이 입식을 희망하였는데,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좌식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P<.001).

닦을 때는 좌식이 가장 많았으나,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매우 높고, 현재 3집단 모두 입식을 희망하여(P<.05), 에너지소비가 많은 닦는 행위를 입식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였다.

(5) 조리행위

일상적인 조리행위시에는 입식이, 김치담그기, 야채다듬기등의 비일상적인 조리시에는 좌식이 우세하여, 조리내용에 따라 차이가 보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일상적인 조리는 입식이

고, 비일상적인 조리는 좌식이었다. 일상적인 조리는 현재 입식과 혼용식집단은 입식을 희망하였으며, 비일상적인 조리는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좌식집단은 좌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사노동행위의 입식화 순서는 일상적인 조리→청소시쓸때→세탁→비일상적인조리→청소시닦을때→재봉→다림질의 순으로 닦는 청소와 다림질의 입식율이 제일 낮았다.

IV. 결 론

서울시 거주자들의 기거양식은 생활행위 전반에 걸쳐 입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노동행위는 입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생활행위별로는 식사, 공부, 세면, 배변, 일상적조리, 독서, 단탄행위는 입식이었고, 세탁과 청소시 쓸때의 행위는 혼용식이며, 화장, 다림질, 청소시 닦을 때, 재봉행위는 좌식이었으며, 손님접대와 취침은 입식과 좌식등이 병존하는 행위였는데,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기거양식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또한 현재의 기거양식이 입식인 집단은 장래도 입식을 희망하는 경향이였으며, 혼용식인 집단은 혼용식을, 좌식인 집단은 입식과 혼용식(또는 입식과 좌식)을 희망하여, 현재의 기거양식의 성향이 장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현재의 기거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계획이 요망된다.

V. 참 고 문 헌

1. 윤정숙, 이은경, 한국 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양식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8권 3호, 1990
2. 장상옥, 신경주, 서울지역 가정에서의 기거양식의 현황과 그 전망, 제5차 한.일가정학 Symposium, 1990
3. 今井範子, 住様式がらみだ住宅平面に関する研究, 京都大學學位論文, 1986.
4. 澤田知子, イス式家具導入過程がらみだ起居様式の指向性(その1),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38號, 1992, 8.